

# 윤성원 차관,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 - 2022년 현장점검 15%·안전컨설팅 확대, 안전캠페인 활성화 등 추진 -

□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'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하였다.

\* 정부,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(매년 2회 개최)

□ 윤성원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소속·산하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.

○ 특히,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,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
\* 산업재해 사고사망자(고용노동부, '21.9월 기준) : 전산업 678명 건설 340명

○ 이를 위해 지방국토청,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\*하고, 안전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, 스마트 안전장비\*\* 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\* '21년 19,600개소 → '22년 22,600개소(15% 확대)

\*\* 위험예고 장비(헬멧 등), 원격변위 계측기, 지능형 CCTV, 충돌방지 장치 등

- 이와 함께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는 등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·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·질식,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, 사전점검·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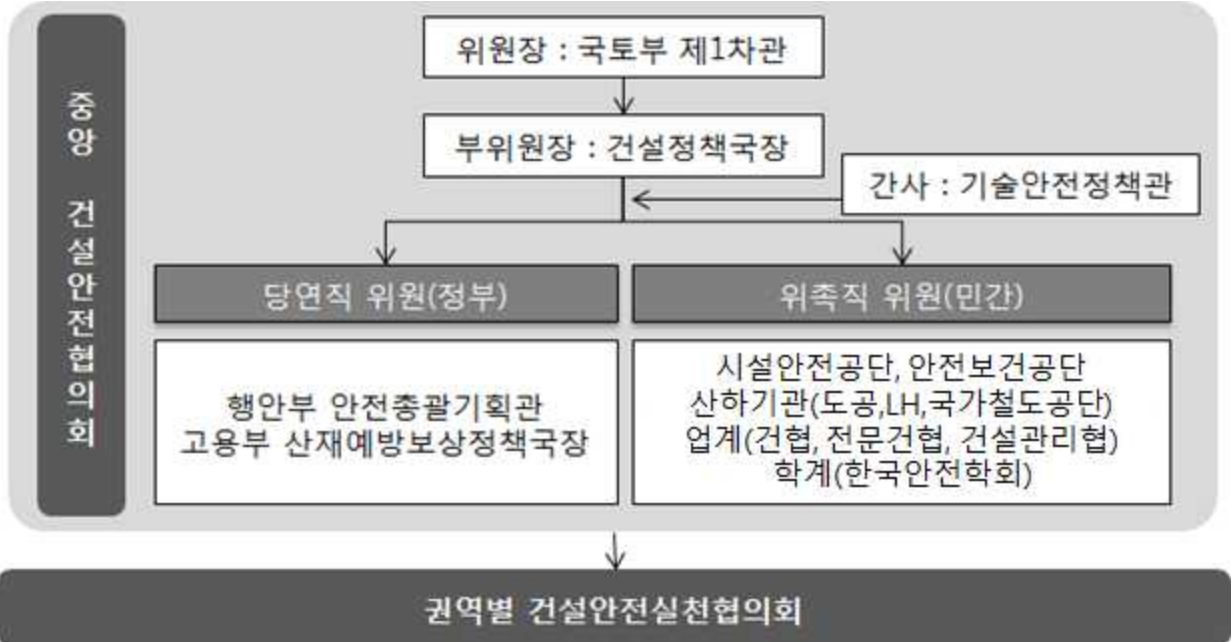
2021. 12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## 참고

## 건설안전협의회 개요

- 중앙건설안전협의회와 산하 5개 권역별 건설안전실천협의회로 구성



### ※ 협의회별 담당업무

조 직	담 당 업 무
중앙 건설 안전협의회 (연 2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간 건설안전 정책 방향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현장 안전정책 공유 및 방향 논의</li> <li>건설안전 목표지표 설정</li> <li>대표 슬로건 개발 등 안전문화 조성방안 논의</li> <li>관계자 결의대회 등 합동행사 추진</li> </ul> </li> <li>권역별 건설안전 추진 성과 관리 및 평가</li> </ul>
권역별 건설안전 실천협의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담당권역별 건설안전지표 관리</li> <li>연간 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캠페인 등 건설안전 홍보 및 교육</li> <li>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(ex. 소규모 현장 지원)</li> <li>건설안전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</li> </ul> </li> </ul>